

민주당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공천률 어떻게 되나

# 전략공천 30% 시민배심원 도입 여부 촉각

## 기초長 국민경선·의원은 당원 경선 원칙 경선·후보압축 방안 늦어도 내달초 결정

6월 지방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구체적인 경선 방법과 후보 압축 방안을 담은 당규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 출마 예정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조만간 중앙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경선 방안 및 후보 압축과 관련한 당규 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당규가 확정되면 공심위를 운영,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후보 압축 및 경선 방법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민주당 광주시당, 전남도당 등에 따르면 중앙당은 6월 지방선거를 후보 선출과 관련, 광역단체장은 국민참여경선, 지방의원은 당원경선을 도입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전략공천 30% 범위 내에서 각급 선거에 적용한다는 원칙도 마련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까지 지방선거 후보 경선 방법과 후보 압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과거 통합 과정에서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과 관련한 당헌은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당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선의 원칙만 있고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경선의 경우, 여론조사 경선과 선거인단 투표 방법 등이 있지만 모든 방법이 당규에 포함될 것인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또한, 국민참여경선의 선거인단 구성시 국민과 당원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당원 경선도 일반 당원 경선, 대의원 경선, 지역구 당원 경선 등 갖가지 방법이 있고 후보 압축도 여론조사와 공심위 평가 등의 방법이 있지만 이러한 방안들이 모두 당규에 포함될 것인지 불확실하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설 연휴 이전에 중앙위원회를 개최, 그동안 마련한 당규 제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경선 관련



**어깨띠 두르고** 양형일, 정찬용, 정동채(오른쪽부터)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3일 광주시 북구 동신고 체육관에서 열린 남평읍 광주 북구청장 후보 출판기념회장에서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과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당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지방선거 경선 방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지방선거 공천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중앙당에서 당규 제정안을 확정하면 이를 토대로 공심위를 가동, 구체적인 후보 압축 방법과 후보 경선 방법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 경선 방법 및 후보 압축 방안은 이 달 말 하순이나, 늦어도 3월 초순에는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핵심 관계자는 "중앙당에서 당규 제정안을 확정하지 않아 구체적인 경선 방법과 후보 압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만간 중앙위원회에서 당규를 제정하면 광주시당 공심위를 통해 후보 압축 및 경선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 6·2지방선거 달라진 선거운동

## 운동원 늘어 길거리 어깨띠 행렬 이메일·휴대전화 지지호소 가능

지난 2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중 선거운동 제한이 완화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 운동은 과거 선거운동과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 예비후보 선거 캠프도 개정된 선거법에 맞춰 최대한 예비후보를 홍보할 수 있는 새로운 이색 선거운동 전략을 짜내고 있다.

우선 거리에서 모자·티셔츠 등 동일한 복장에 어깨띠를 두르고 지지를 호소하는 예비후보와 선거 운동원을 마주칠 수 있다.

과거에는 본인·수행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한 사람만 명함을 배포할 수 있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예비후보와 4명의 선거사무원, 후보가 지정한 수행원 1명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도 넘을 수 있게 된다. 단 후보와 동행해야 한다.

이들은 예비후보를 매일 '그림자'처럼 뒤따르며 '경호(?)'와 함께 홍보전을 동시에 펼치고 있다. 따라서 예전보다 더 많은 명함을 배포할 수 있어 홍보 효과도 극대화되고 있다.

모 예비후보는 3일 하루 동안 광주 시내 곳곳을 돌며 약 1만 장의 명함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후보 동행 없이 명함을 배포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된다.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예전 선거 때는 후보 1명만이 명함을 뿌리다 보니 하루에 많으면 1천300여 장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하루 1만 장은 거뜬히 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후보 선거 캠프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을 통해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사이버팀'을 꾸려 활동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부터 예비후보 등록자는 지지호소 내용이 담긴 이메일의 대량 전송도 가능하고,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5회까지 허용됐기 때문이다.

각 후보들은 캠프에 2~3명의 사무원을 두고 예비후보 홈페이지 관리 및 인터넷 뉴스를 통해 후보 알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가 허용되고 간판과 현판, 플래카드를 무제한 설치할 수 있어 각 후보들은 선거 홍보물이 유권자의 눈에 쉽게 될 수 있도록 교통량이 많은 곳이나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에 선거사무실을 설치해 두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 김동철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 “광주시장 경선 시민공천배심원 도입 만장일치 안되면 다수 의견으로 결정”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에서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범위와 세부 방안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여부는 중앙당과 광주시당의 협의가 우선된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김동철 의원(광산 갑)을 만나 입장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도입되나.

▲도입을 반대하는 광주 국회의원들이 더 많다. 설 연휴 전에 충분히 논의해 그 결과를 중앙당에 전달하겠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분히 논의하겠다. 그러나 만장일치가 안 되면 다수 의견으로 결정할 것이다.

-일각에서 시민배심원제를 통해 컷-오프를 하자는 의견이 있다.

▲개인적으로 반대하나 중앙당 등에서 주장하고 광주 국회의원들이 동의한다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컷-오프가 도입된다면 최종 경선 방법은 어떻게 되나.

▲국민참여경선이 유력하다. 완전국민경선은 현재의 선거법을 고려하면 도입이 어렵다. 1만 명(시민5천, 당원 5천)의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방법이 우선 있으며 여론조사를 통한 방안도 있

다. 동원 경선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이전에 등록된 당원이 대상이 돼야 한다.

-시민배심원제 평가 점수를 경선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미 중앙당 등에서 투표의 등가성 문제를 들어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기초단체장 경선과 시민배심원제 도입 여부는

▲중앙당과 논의해 하고 지역구 여론과 지역위원장 입장도 반영해야 한다. 현재 강기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찬성하는 의원이 있는지 모



르겠다. 일단 국민참여경선이 원칙이다.

-지방의원 경선은 어떻게 되나.

▲원칙은 당원 경선이다. 그러나 경선 방식과 관련한 정확한 당규가 마련되지 않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를 압축하고 경선 방식을 정하는 공심위 구성은 어떻게 되나.

▲오는 11일 광주 국회의원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5명의 외부 인사(3명 여성)로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김장환·윤기선씨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 고병욱씨 광주시장 후보에

6·2전국동시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이틀째인 3일에도 입지자들의 후보등록이 이어졌다. 김장환 전 전남도교육감과 윤기선 남도사람나무 이사장은 이날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이로써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모두 5명이 됐다.

김 전 교육감은 이날 예비후보 등록 후 "교육감 재직 때 수행했던 선진적 교육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확실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그동안 쌓은 교육 경험과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전남교육을 전국 최고의 수준

까지 끌어올리는 게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4일 오전 10시 전남도교육청 기자회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공약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윤기선 '남도사람나무' 이사장은 이날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4일 오전 11시 전남도교육청 기자회견에서 출마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역 정치권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고병욱(61)씨가 지난 2일 오후 광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고씨는 무소속으로 광주시장에 출마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직업은 종교사업가(기독교 목사)로 선관위에 신고했다. /최권일기자 cki@

**장사직향**

광주MBC 문화림향 특선

VIP 피우친 지방, 특급호텔

특선 제품 사모, 봉합, 침장, 치마, 거울, 벨트, 셔츠

**무안 ↔ 장사직향**

★ 단 5회 한정판매 3/13, 3/17, 3/20, 3/24, 3/27 ₩ 699,000~

구분	수량	가격
전체	3,177,304	₩ 699,000
1인	1,588,652	₩ 349,000
2인	1,588,652	₩ 349,000

광주MBC 문화림향 전세기 사무실 062) 226-6070